

## 2020 동서가족 연합 감사예배

동서학원 가족 모여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 마음 드려



▶동서가족 연합 감사예배

지난 11월 14일, 우리 대학은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모아 감사예배를 드렸다. 올해도 아낌없이 열린 예배는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동서학원 가족 모두가 모여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

예배는 경남정보대학교 미래관 글로벌 컨벤션홀에서 진행됐다. 자리에는 ▲박동순 동서학원 이사장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 ▲추만석 경남정보대학교 총장 ▲양상백 부산디지털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3개 대학의 교직원과 대학교회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2020 동서가족 연합 감사예배'가 진행됐다. 사상구의 장제원 국회의원도 참석하여 더해진 은혜는 자리를 더욱 빛냈다.

한편 올해 동서가족 연합 감사예배는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 확인 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적색은 일직 간격을 띄워 앉은 채 예배를 진행했다.

철저한 검역 후 먼저 우리 대학 의 2개

대학의 한 해 성과를 담은 영상물을 시청하며 막을 올렸다. 이어서 유익한 목사의 기도, 동서학원 합창단과 시온 성가대의 '순종의 길, 승리의 길' 찬송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감사 마음이 홀에 크게 울려 퍼졌다. 경남정보대 박진태 교목의 성경봉독(이사야서 61:1) 낭독 이후, 호산나교회 유진숙 목사가 '의의 나무'란 주제로 설교 말씀을 전했다. 유 목사는 "동서가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야 하며, 성령에서 나무의 의미는 대단히 다양하고 큰데 의의 나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뜻한다."라고 설교했다.

유익한 목사는 "여러분은 장성만 박사님의 꿈과 비전을 함께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먼저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의의 나무'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째,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한다. 둘째, 어떤 자리에서든 예배하는 모습으로 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열매 맺는 생명 나무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서가족이 꼭 되기를 바란다. 학생들이 바라볼 때도 그들이 의의 나무가 되길 꿈꾸자. 세상이 절망적이어도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존재들로 그들을 성상시키길 바란다."라고 설교했다.

유 목사가 언급한 고(故) 장성만 박사는 1985년 동서학원을 설립한 이래로 진리·창조·봉사를 그리고 믿음·소망·사랑을 바탕으로 현재의 동서학원이 있기까지 수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장성만 박사가 가장 좋아했던 구절이다. 이 구절을 통해 오늘날 동서학원과 우리 대학은 그의 기독교 이념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날이 발전을 기하고 있다. 장성만 박사 추모예배는 매년 이날 5일, 그의 기일을 기념하여 진행하고 있다.

어느덧 동서학원은 올해 설립 55주년을, 우리 대학은 개교 28주년을 맞이했다. 세 대학의 은혜로왔던 감사예배를 통해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마무리하며 내년을 하남인 큰 베품에 더 큰 보답을 하고, 행복 하길 바란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학문과 학교생활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학생들의 인격을 완성하고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집중해 왔다. 이러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대학과 동서학원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대하고, 감사예배에서 언급했던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동서인이 되기를 바란다.

한여월 기자  
hanyeowon0329@gmail.com

## LINC+사업단 AI 패션 플랫폼 구축

(주)사맛디와 산학협력을 통해 시연회 가져



▶'Fashion AI' 부스 시연회

우리 대학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링플러스·LINC+) 육성사업단이 (주)사맛디(SAMATTI)와 산학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패션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를 위해 앞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 까지 진행된 부산 벡스코 '2020 패패부산 부산국제섬유패션전'에서 (주)사맛디의 'Fashion AI' 부스를 통해 시연회를 가졌다. 본 '사맛디 패션 AI' 프로젝트는 정밀하고 통계적으로 구성된 패션 감성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소비자 개인의 기호성을 존중하여 슬기로운 패션 라이프 가이드를 제공한다. ▲Choose(제품의 선택) ▲Buy(합리적 구매) ▲Cody(목적의 코드) ▲Create(나만의 스타일 창조)의 4가지 측면에서 서비스를 출시 예정이다.

본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주)사맛디(대표 이종혁)와 우리 대학 LINC+ 사업단(단장 조대수)의 산학공동연구와 클래스셀링(Class Selling)수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클래스셀링은 '주문식 판매 수업'으로 기업 측에서 요청한 성과물을 창출하는 문제 해결형 교과목이다. 동서대 LINC+ 사업단의 산학공동연구는 교수나 가족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패션 플랫폼 구축은 사맛디의 인공지능 기술과 동서대의 디자인 기술을 융합한 결과물이다. 우리 대학 과제 총괄은 디자인학부의 김형숙 교수가 담당했다. 이번 프로젝트엔 2020년 1~2학기 동안 걸쳐 패션 디자인학과 4학년

11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이 중 일부 학생은 사맛디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프로젝트를 기획한 김형숙 교수는 "이번에 구축한 인공지능 기반 패션 플랫폼을 활용하여 접목되어 있는 지역 패션기업 및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며,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실무와 연계된 살아있는 지식 함양과 융합적 관점을 갖고 시대에 맞는 인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사맛디의 이종혁 대표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동서대 LINC+ 사업단에 감사의 말씀을 표하며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 개발에 참여한 학생들도 서비스가 출시되면 직접 체험해보며 슬기로운 패션 생활을 경험해 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대수 동서대 LINC+ 사업단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LINC+ 사업단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기업, 교수, 학생이 함께 산학협력 성과를 도출한 좋은 사례이다. 이처럼 동서대 특성과 분야인 디자인을 인공지능(AD, VR/AR, IOT 등) 다양한 기술과 융합하여 시대에 알맞은 교육내용과 교육시스템으로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 혁신적인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본 공동 프로젝트의 데모 버전은 '사맛디 데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여월 기자  
hanyeowon0329@gmail.com

## 박동순 동서학원 이사장, 포럼 발표자로 초청받아

세계 여성 총장회의, 고등교육 미래를 위한 여성 리더십 플랫폼



▶박동순 동서학원 이사장의 발표 진행

제9차 세계 여성 총장회의의 포럼(The World Women University President's Forum)에서 우리 동서학원 박동순 이사장이 원탁 포럼 발표자로 초청되어 '세계 여성 총장 회의는 미래 고등교육을 위한 여성 리더십 플랫폼(WWUPF, a Platform for Women's Leadership for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포럼은 중국 시안공업대학교(Xi'an Technological University)에서 11월 6~8일 사흘 동안 개최됐다. 박동순 이사장은 우리 학교 총장으로 재임한 12년의 경험을 통해 이번 회의에 참가한 전 세계 후배 여

성 총장들에게 미래를 위한 세 가지 제언을 했다. 국제적인 협력체계의 확장, 미래 교육을 위한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한 분과 운영, 마지막으로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멘토링 세션 운영을 성취했다. 이사장의 발표는 큰 호응을 이끈 후 마무리됐다. 박동순 이사장 외에도 ▲타이완 시신대학교의 Chia-lin Cheng 이사장 ▲뉴질랜드 Massey대학의 Judith Kinnear 전 부총장 ▲핀란드 University of Tampere의 Krista Varantola 전 총장 ▲유럽여성총회(EWORA)의 Gulun Saglamer 회장 등이 발표자로 초청되어 여러 아이디어를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은 세계 여성대학 총장 포럼/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조직 위원회, 시안공업대학교, 중국전매대학교, 세계 여성대학 총장 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글로벌 공감 - 문명 간의 상호학습 - 대학의 혁신'이란 주제로 전 세계 총장과 전문가들이 가질 수 있는 국제적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인종, 국적, 언어, 종교, 성별 등에 상관없이 다른 출신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호 작용 능력을 대학 자체에서 개발 필요성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다. 외에 또 사회 및 교육의 혁신, 각 대학의 협력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양성평등과 여성 리

더신 간의 글로벌 변화에 대한 공통 학습 등의 주제가 논의됐다.

류 지난(Liu Jinan) 전 중국전매대학교(Communication University of China) 총장과 70명의 대학 총장, 부총장을 포함한 약 180명의 참가자가 회의에 참여했다. 전 세계 각 대학이 모이는 점을 고려해 중국 측 참석자들은 오프라인으로, 이외의 참여자들은 화상회의의 Zoom을 통한 하이브리드 형태 회의가 진행됐다. 박동순 이사장 또한 Zoom을 이용하여 발표를 진행했다. 제9차 세계 여성 총장 회의는 4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11월로 연기됐다. 포럼의 류 지난 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야기되는 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단결해야 하며,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대학은 세계화된 세상에서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포럼은 시안공업대학의 학생 합창단 공연을 끝으로 무사히 끝났다.

박동순 이사장은 1999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2년 동안 우리 대학 4~6대 총장을 역임했다. 세계화, 정보화, 특성화 전략을 기반으로 ▲임권택 영화 영상 예술대학 설립 ▲민석도서관 설립 ▲해운대 센텀 캠퍼스 착공 ▲미국·중국 해외 캠퍼스 조성 ▲세계 여성 총장 회의 개최 등 훌륭한 성과를 이룬 전적이 있다. 지난 2018년 우한대학에서 개최된 '제8차 세계 여성대학 총장 포럼'에선 평생 고등교육 공로상을 받은 성과가 있다. 현재는 동서학원 이사장으로 동서대, 경남정보대, 부산디지털대를 이끌고 있으며 동서학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교육과 환경 분야에 걸쳐 넓은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여월 기자  
hanyeowon0329@gmail.com

## 관광학부 트래블톤 경진대회 휩쓸어

팀 대상 수상에 이어 우수대학 선정



▶대상을 수상한 팀 '씨스루'

부산관광공사에서 주최한 '2020 부산 관광 트래블톤 경진대회'에서 관광학부의 팀 '씨스루(Sea: Thru)'가 대상을 수상했다. 관광경영 전공 4학년 김도희, 김소영, 손예진, 이소정, 이소정 학생으로 구성된 '씨스루(Sea: Thru)'는 트래블톤 심사 결과 대상에서 '드라이브 in 축제'라는 현장형 언택트 관광상품을 기획하며 1위로 선정됐다. 이들의 작품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관광업계의 도약을 위해 설계된 신개념 비즈니스 모델로 자동차 극장, 맥도날드의 드라이브스루, CGV의 동선관리, 푸드트럭 서비스와 ICT를 결합하여 언택트와 현장감을 동시에 충족시킨 융복합 모델이다. 심사 관계자는 정밀한 사업계획과 타당성 있는 분석 등 우리 대학 학생들의 체계적인 접근과 열정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언급했다.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은 트래블톤 단체부문에서도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며 2관왕의 영광을 거머쥐었다. 주최 측은 5월 부터 시작된 관광창업 스톱의 교육과정이 3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우리 대학 관광학부 학생 22명은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였다는 점을 주목하였고 이에 따라 우

수대학으로 선정됐다. 트래블톤은 관광 서비스 사업화를 아이디어를 주제로 진행하는 공모전으로 작년 이어 올해가 2회째 개최됐다. 시상식을 진행한 부산관광기업 지원센터는 관광분야 창업 면에서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팀 간의 협력을 통해 '관광 창업'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탐구와 도전으로 부산 관광산업 발전에 또 하나의 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12개 대학의 140명 학생이 참여했으며 예선을 통해 1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우리 대학이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관광학부 관광경영 전공은 2년 전부터 관광과 ICT 과목을 개설하면서 스마트관광, 여행 플랫폼, OTA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꾸준히 설계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키우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변화에 누구보다 빠른 초기 대응을 준비해왔다. 이번 트래블톤 경진대회를 통해 보인 역량만큼 앞으로 관광학부의 멋진 활약과 더불어 우리 대학의 위상이 펼쳐질지 기대되는 바이다.

한여월 기자  
hanyeowon0329@gmail.com

# 2020 동서 학술 엑스포 개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열려

학부	시간	9:00	9:30	10:00	10:30	11:00	11:30	12:00	12:30	13:00	13:30	14:00	14:30	15:00	15:30	16:00	16:30	17:00	17:30	18:00	18:30	시간	학부		
건축대학	건축공학과																						건축공학과	건축대학	
	토목환경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건축대학
관광대학	관광학과																							관광학과	관광대학
	국제통상물류학과																							국제통상물류학과	국제통상물류대학
글로벌경영대학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대학
	디자인대학																							디자인대학	디자인대학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보건의료계열	보건학과																							보건학과	보건의료계열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스포츠과학계열	스포츠과학계열																							스포츠과학계열	스포츠과학계열
	외국어계열																							외국어계열	외국어계열
원광공과대학	원광공과대학																							원광공과대학	원광공과대학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 학술 엑스포 학과별 일정표

지난 11월 17일 1년간 수확한 내용을 발표하는 동서 학술 엑스포가 개최됐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부분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학술 엑스포에서 학생들은 공모전, 학술세미나, 학술 엑스포, 졸업생 특강, 학술제, 전시회, 연구회 활동 발표 대회 등 다양한 형태로 그동안의 성과와 성장 모습을 보여줬다.

건축도목공학부의 건축공학과는 '온라인 특색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토목환경공학과는 '온라인 연구논문 포스터 발표'를 건축학과는 '오프라인 캠퍼스 폴리 작품 공모전'을 진행했다.

관광학부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관광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다. 관광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대외 공모전 준비 중인 수준 높은 관광연구물 경진대회 '관광 아이디어'와 코로나 이후 꿈꾸는 나만의 여행 계획 공유하는 '여행 계획' 코로나 상황에서 가능한 나만의 일상 속 관광 팁 '브이로그' 분야로 공모를 실시했다.

국제통상물류학부의 국제물류학과는 '2020 해운항만물류산업 사례 분석 프레젠테이션'을 국제통상학과에서는 '2020 국제통상학과 학술 엑스포'를 진행했다. '2020국제통상학과 학술 엑스포 프로그램'은 해외취업 프로그램과 DAIP 활동보고로 구성된 '국제 프로그램 페스티벌'과 대표 연구회 프로그램, FAT 박람회로 구성된 '학생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글로벌경영학부는 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영·창업 발표와 국내외 산업 체험'을 한·일 학술 교류'를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시간 순서대로 '경영 주제의 연구 결과물',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위한 공장지동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하는 '글로벌경영학부 학생 대토론회', '창업 및 비즈니스 아이디어 경진대회', '해외 탐방 프로젝트 발표회', '지역 산업 탐방 프로그램', '한·일 국제 교류 학술 세미나'로 진행했다.

디자인대학은 미래 디자이너의 디자인 윤리 및 실천역량과 문화 이해 역량을 대

한 교육 및 디자인 관점에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감성 공감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2020 학술 엑스포 디자인 전공 역량에 관한 졸업생 특강 콘서트'를 진행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계열의 방송영상학과는 재학생들의 현장 실무 강화와 4학년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방송 영상 현장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졸업 작품 상영회를 개최한 '방송영상학과 엑스포'를 진행했다. 광고홍보학과는 실제 현장 및 한·일 학술 교류'를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시간 순서대로 '경영 주제의 연구 결과물',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위한 공장지동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하는 '글로벌경영학부 학생 대토론회', '창업 및 비즈니스 아이디어 경진대회', '해외 탐방 프로젝트 발표회', '지역 산업 탐방 프로그램', '한·일 국제 교류 학술 세미나'로 진행했다.

디자인대학은 미래 디자이너의 디자인 윤리 및 실천역량과 문화 이해 역량을 대

제작, 기타(사진, ASMR등의 자유형식)으로 참여하는 '제5회 사회복지학전공 연구회 학생회 연합학술 공모전'을 진행했다. 청소년상담심리학전공은 상담사례를 연구하고 분석하여 내담자와 상호작용 방법에 대한 학습 및 발표하는 '청소년 상담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스포츠과학계열의 경영전공은 2~4학년 학생들 중 발표자를 선발하여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학생들의 진로 및 학교생활 그리고 자격증 등 다양한 프로그램 또는 취업 관련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했다. 체육학과는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방법을 소개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경진대회 및 전공 관련 프레젠테이션 발표회, 실기 발표회(축구, 배드민턴, 미식축구 등)를 포함하는 '2020 Sports Concert'를 진행했으며 운동처방학과는 다양한 소도구를 활용한 생애 주기, 대상자별 운동 프로그램 구성하고 적용을 통해 전공지식 심화 학습 및 실무능력 향상 도모하는 '전공역량 강화를 위한 운동처방 학술 엑스포'를 진행했다. 앞서 말한 두 학과는 타 학과들과 다르게 대면으로 시행했다.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는 학생들의 아이디어 도출 및 제작 결과물에 대한 내부 및 외부인 평가를 실시하는 'SCOPE EXPO'를 진행했다. 학생들이 준비한 결과물들은 학과 홈페이지 '2020 SCOPE EXPO 외부 심사'란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외국어계열의 학과들은 해외연수 참가 체험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일본어학과는 일본 근대 시 번역 발표회 및 일본 연수 체험담을, 중국어학과는 해외연수 프로그램 체험기 발표회와 중국어 온라인 말하기 대회를, 영어학과는 해외연수 참가 체험담을 각각 진행했다.

화학공학부의 식품영양학과는 식품영양학과 연구회의 연구논문 발표 및 포스터 전시하는 '제9회 식품영양학과 학술제'를 진행했다. 신소재화학공학과와 생명화학공학과, 에너지환경공학전공은 함께 연구회의 연구논문 발표 및 성과 발표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학술제로 선우배, 동기들과 교류하면서 잊고 살았던 캠퍼스 생활을 잠깐이라도 다시 느낄 수 있었던 기회를 된 것 같다.

김경은 기자  
ymacom10@gmail.com

# 제1회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수상

해양 환경공단 개최 공모전, 국제물류학과 학생들이 수상



▶ 수상자 팀 BDAD의 모습

해양 환경공단 소속기관 해양 환경교육원은 해양오염 예방 및 대응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1회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우리 대학 국제물류학과 재학생들의 수상 소식을 전했다.

'제1회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해양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싶었던 우수한 우수 아이디어를 채택해 관련 기술을 발굴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지난 7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약 두 달간 예비 창업자와 3년 이내의 창업자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했으며,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지난 24일 비대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2명, 우수상 2편을 최종 선정했다.

우리 대학 국제물류학과 4학년 유재호, 박상민, 추성민으로 이루어진 BDAD 팀은 'AR 기술을 통한 신(新) 해양교육 프로그램 구축'이라는 사업 아이디어에 의한 언택트 시대를 맞아 기존 대면 중심의 해양 환경교육을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제안하였고 우수상을 수상했다.

BDAD 팀은 우리 대학 국제물류학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운항만물류전문 인력 양성사업단(산학연계 인턴십 과정)을 통해 올해 해양 환경공단 산하 해양 환경교육원에서 인턴생활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수상을 거머쥔 BDAD 팀 학생들은 수상자 중 유일한 대학생이다.

해양 환경교육원은 선발된 수상팀을 대상으로 컨설팅, 시제품 제작을 위한 추가 연구 및 성능 실험 인프라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은 기자  
ymacom10@gmail.com

팀장을 맡았던 유재호 학생은 수상소감으로 "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다소 생소한 해양 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되는 것도 없다는 교수님 말씀을 듣고 공모전에 참가하였고, 큰 상까지 수상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대학생으로서 기업인들과 당당히 겨루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에 큰 자신감을 얻게 된 기회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우리 대학 국제물류학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운항만물류전문 인력 양성사업단(산학연계 인턴십 과정)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루어지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현장밀착형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지향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우리 대학은 향후 5년 동안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및 교비 대응자금 등 총 8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우리 대학은 국제물류학과는 IFS(In-school Field System) 기반 첨단 교육공간을 구축하여 교육생들에게 현장실무와 실습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전문가 특강, 국내 및 해외 현장체험, 국내 및 해외기업 인턴십, 멘토링교육, 취업아카데미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해 왔고 있다.

우리 대학은 해운항만물류전문 인력 양성사업단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다양한 전문인력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특강과 멘토링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수준높은 교육을 통해 우리 대학 학생들이 이들과 같이 좋은 소식이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김경은 기자  
ymacom10@gmail.com

# 광고홍보학과 코로나19 예방 버스 외부광고

시내버스 30여 대 부착 및 부산 시내버스 FAQ 카드뉴스 제작



▶ 감사장을 든 광고홍보학과 양혜영, 김나경, 황지인, 김신영 학생

우리 대학의 광고홍보학과와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협업하여 지난 7월 부산 시내버스 외부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외부 광고가 부착됐다. 이 광고는 우리 대학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이 LINC+사업단의 모델링 캠프를 디자인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나온 결과물이다.

이 프로젝트는 광고홍보학과와 교내 실무 중심 교육인 IFS(In-school Field System)를 통해 진행된 것이다. IFS는 학교 안에서 이론을 배우면서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최신 교과과정이다.

광고홍보학과 4학년 김나경, 김신영, 양혜영, 황지인 씨는 IFS(In-school Field System) 2 수업(지도교수 김종필)과제로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외부광고를 제작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감소 현상을 회복하고 시내버스의 안전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부산광역시 버스

운송사업조합에 직접 연락을 했다고 한다.

김나경 학생은 "협업 기업 선정 시, 코로나19로 인해 부산 시민들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버스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사회가 직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연락을 드렸고 마침 조합 측에서도 고민하고 있던 문제라 좋은 기회에 협업하게 되었다. IFS 수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서 만족스럽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 광고는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업하여 3종(인도면, 차도면, 후면)의 버스 외부 광고와 부산 시내버스 FAQ 카드뉴스 2종을 제작했다.

김신영 학생은 "처음에는 부산 시내버스에 우리 팀의 제작물이 부착된다는 사실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팀원들과 함께 완성도를 끌어올리면서 멋진 결



▶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이 제작한 광고가 부착된 버스

과물을 낳게 되어 우리 모두가 굉장히 뿌듯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 시내버스 FAQ 카드뉴스는 시내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버스 이용객들의 자주 묻는 질문 중에서 사소한 하지만 쉽게 해결하기 힘든 질문들을 주려 질의응답 형태의 영상으로 총 2편을 제작했다. FAQ 카드뉴스가 재생되는 영상은 부산 시내버스 내부 모니터, 조합 공식 SNS, 홈페이지 등에 게시됐다.

양혜영 학생은 "제작 과정에서 많은 수정이 있었던 만큼 정성과 애정이 가득한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 팀의 결과물이 부산 시내버스에 부착된 채, 운행된다는 사실이 더 기쁘게 다가왔다. 종종 지나가다 마주치기도 하며, 친구들이 인증 사진도 보내준다. 그럴 때마다 많은 부산 시민들에게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노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작품 제작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선현도

이사장으로부터 감사장과 작은 선물을 받기도 했다.

황지인 학생은 "IFS2 수업 덕분에 기업과 협업할 수 있었다. 기업과 협업하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작업을 한 것이 실제로 부산광역시 버스에 부착되어 활용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것에 뿌듯했다. 우리 팀 작업 결과물을 좋은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감사하다."라고 이번 프로젝트 소감을 밝혔다.

새롭게 도입된 교육 프로그램이 기존의 교육과 빠르게 적용하여 이번과 같은 성과를 낸 것에 앞으로의 발전도 기대가 된다. 코로나19로 많은 행사, 공모전, 협업이 취소되고 위축되는 시기에 코로나19 예방을 주제로 외부광고 협업을 이루어내고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과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자료출처 : 버스운송사업조합  
김경은 기자  
ymacom10@gmail.com

# 제27회 부산패션디자인 경진대회 4관왕

디자인대학 2년 연속 주요 수상자 대거 배출



▶ 수상한 학생들 모습

부산패션섬유사업협동조합은 부산광역시와 함께 주최한 '제27회 부산패션디자인 경진대회' 수상자를 11월 17일 발표했다. 수상자는 산업통상부 장관상인 대상을 비롯해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5명, 특별상 3명, 인기상 1명, 특선 5명, 입선 23명 총 40명이었으며 이 중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이 우리 대학 패션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자유주제로 전국에서 모집, 진행했다. 자유주제로 1차 디자인 컨셉에서 치열한 예선전을 치르고 입선한 40여 작품들이 본선에 진출하여 2차 실물 의상 심사와 무대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상을 차지한 임지희 학생의 작품 'Eodysis'는 인간이 자신의 상태나 처지에서 벗어나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을 동물로 탈피하여 이르는 상태에 빗대어 작품에서 중의적으로 다뤘다. 여러 겹으로 이어 만든 가죽은 탈피 직전의 단단함을 나타내며 부드러운 소재들을 다양하게 쌓아 만든 소재 개발은 탈피가 이뤄지는 과정을 표현했다. 그리고 러플은 개더와 플라온스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돼 풍성한 느낌

을 주며 완전함을 나타냈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임지희 학생은 소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쓰며 만들어낸 소중한 작품이고 어쩌면 학교생활에서 나의 마지막 작품이 부산패션 경진대회라는 공모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영광이다. 이로 인해 4년 동안의 배움의 과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결심하고 학생들이 차지했다."

우리 학교 디자인대학은 국제·국내 디자인 공모전에 많은 수상자를 배출해왔고 특히나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여며 국내외적으로 저력을 과시해왔다.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학생들의 실무 역량 증진에서 힘써왔다. 특히나 부산패션 경진대회 2년 연속 주요 수상자 배출 성과는 디자인대학이 노력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꾸준히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디자인대학 학생들의 차세대 패션업계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김경은 기자  
ymacom10@gmail.com

# 제1회 청년 CEO 창업 포럼 개최

“슬기로운 창업생활” 토크 콘서트를 열다



▶제 1회 청년 CEO 창업포럼



▶창업포럼에서 강연하는 모습

우리 대학은 지난달 4일 교내 상상 스퀘어에서 제1회 청년 CEO 창업포럼을 개최했다. 동서대 창업지원단에서 추진한 이번 창업포럼은 2020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본 행사에는 학생과 청년 CEO들이 참석해 창업의 어려움과 극복 과정에 대해 발표하고 대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해 조언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동시에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2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했다.

이날 강연자로 초대된 싸이월드 창업자이자 현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동형 센터장으로, '계획이 있어야 실패도 성공도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했다.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창업계획과 목표에 대해 진심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창업을 하고 싶으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창업 시 필요한 준비사항을 알려준 것과 동시에 현 코로나 시대에 추구할 방향을 꼼꼼히 지도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의 채용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청년들이 취업할 곳이 없어져, 청년 창업 유입이 증가한 상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

르면 청년층(25~39세) 취업자는 771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33만 2,000명 감소했다. 이는 2009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가파른 감소세다. 고용율이 있는 자영업자를 다 합해도 올해 3만 3,000명 증가해 작년 1만 9,000명보다 증가폭이 컸다. 중소기업부가 24일 발표한 '창업 기업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창업기업은 34만 3,128개로 '19년 3분기에 비해 13.3% 늘어났다. 3분기 기술 창업은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증가가 이어지며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5만 7,648개로 나타났다. 3분기 기준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기술 창업 중에서도 제조업 창업이 분기 기준으로 2018년 4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에 증가해 기술 창업의 증가를 뒷받침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으며, 새로운 시도를 바탕으로 한 30세 미만과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활용한 60세 이상의 창업이 특히 활발했다. 올해 1~9월 누적 창업기업은 115만 2,727개로 전년 대비 21.9% 증가했고, 같은 기간 기술 창업은 4.6% 증가한 17만 3,928개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결국 취업 길 이 막히자 생계형 창업으로 방향을 틀는 청년이 더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층 조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35개 시·군의 594개 청년몰 지원 점포 중 226곳이 문을 닫아 폐업률이 38.0%에 달했다. 특히 2017~2018년 조성된 청년몰 점포 459곳 중 226곳이 문을 닫아 폐업률이 49.2%였다. 한국도로공사도 2014년부터 지원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청년 창업 점포 또한 80%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창업 매장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6년간 도로공사의 지원을 받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청년들이 창업한 점포는 총 323곳이다. 이 중 폐업(244)하거나 영업을 중단(16)한 매장은 총 260곳으로 전체의 80.5%에 달했다. 지난 7월 기준 운영 중인 매장은 63곳으로 전체 매장의 5분의 1에 안 되는 19.5%만 살아남은 것이다. 이처럼 청년들은 새로운 꿈을 안고 창업에 도전하지만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다.

거듭된 폐업을 성공으로 이끌고자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은 늘어나고 있다. 우리 대학은 2020년부터 3년간 초기 창업 패

지 지원 사업(중소 벤처기업부, 3년간 약 75%)에 선정됐다. 또한 실험실 창업선도 대학 사업(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년간 약 30억)과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중소벤처기업부, 5년간 약 8억)에 선정되어 대한 발 창업교육의 성과를 실제 창업으로 연결하는 전주기 창업 지원 플랫폼을 완성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룩한 창업지원단은 격려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더욱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창업 모델을 구축해내기 위해 성공적 창업을 위한 각종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창의적 도전정신을 갖추고 기업을 정신을 고취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도는 창업 지원단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행사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청년창업'도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거부감 없는 단어가 되었다. 앞으로 청년 CEO 창업 포럼을 통해 우리 지역 청년 기업들이 창업의 다양한 문제를 토론하며 청년창업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신현정 기자  
hvyuk369@gmail.com

## ■ 학과별 Q&A 인터뷰 - 19학번 김주원 학생

### 시대를 앞서가는 Si콘텐츠전공

Q.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디지털콘텐츠학부 영상 애니메이션전공과 Si콘텐츠부전공에 소속되어 있는 19학번 김주원입니다.

Q.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A.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디어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 인재 및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 속해있는 수업을 전공에 상관없이 융합적으로 들을 수 있으며 전공 필수로는 인공지능의 이해와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부분을 배웁니다. 자신의 전공수업을 들으면서 부전공으로 학점이 인정됩니다.

Q. 이 학과를 부전공으로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A. 지도 교수님의 추천으로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부 차에서도 2D와 3D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분야를 배우는데 이를 융합전공 수업에서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수업들이 많아서 융합적으로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업을 들어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Q. 학과만의 특별한 점이 있나요?

A. 만약 SW융합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게 되면 전공 2개가 6학점이 교차로 지원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컴퓨터를 다루고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다가 융합되어 있는 수업들이 비슷한 부분이 조금씩 있기도 하여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분야라 보니 서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실무로 진행되어 직접적으로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Q. 학과의 힘든 점

A. 전공수업과 부전공 수업을 함께 병행해야 하다 보니 본전공과 부전공

모두 학점을 계산하고 챙겨야 해서 힘든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학부 수업을 듣는 것보다 보니 그 수업을 잘 해내지 못할 것 같아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익숙해지고 적응해나감다 보니 힘든 점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Q. 교과 과정 중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나요?

A. 소프트웨어전공 수업 중 하나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수업입니다. 영상을 만들 때 제가 보기에는 좋고 잘 만든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인터페이스가 될 것인지 배워주었고 내가 보기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남에게는 불필요해 보이는 인터페이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제작할 때 그것을 보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 졸업 후 목표로 두고 있는 직업군이 있나요?

A. 융합전공을 이수한다고 해서 취업 분야가 달라지지는 않는데 현재 듣고 있는 디지털콘텐츠학부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영화사이나 CG 사업, 게임사업에서 세부적이고 다양한 분야 쪽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Q. 이 학과를 다니면서 간단하게 하고 부탁드립니다.

A. 전공수업이 다들 힘들다고 생각해서 어렵다고 문득 도전하기가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이유로 망설였지만 현재 융합전공 수업을 들으며 따라 배울 점이나 알게 된 점이 많았습니다. 융합전공을 통해 장학금도 받게 되자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도전 욕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어려워 보인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학생들도 도전해서 장학금과 원동력을 얻어보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유진 수습기자

## 앞으로 떠오를 유망직종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망 직종 인물 실루엣

▶사진 출처 - 이뉴스코리아



▶빅데이터 전문가

▶사진 출처 - Tech M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수많은 직업이 생겨나고 사라진다. 직업은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게 수요가 변화하고 이에 따라 대대적인 개편이 따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언택트,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바람을 불렀다. 이에 따라 직업 환경과 근무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는 지금,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직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꼽은 15가지 직업으로는 ▲사물인터넷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가상현실/증강현실 전문가 ▲생명과학 연구원 ▲정보보호 전문가 ▲로봇공학자 ▲자율주행차 전문가 ▲스마트팜 전문가 ▲환경공학자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가 ▲3D 프린팅 전문가 ▲드론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가 있다. 언택트 시대의 유행은 IT 기술의 부흥을 불렀다. 비대면이 추구되는 시기에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물품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한 것뿐이

기 때문이다. 사물인터넷 전문가는 기본적인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기획하는 직업으로, 가전제품이나 생산설비, 각종 부품(엔진 등)의 사물에 각종 센서를 부착해 이들 사물이 서로 정보(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도록 하는 기술 환경을 개발 및 구축하거나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기획하는 일을 한다. 헬스케어와 의료, 도시와 안전, 에너지, 자동차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본 직업에 대한 니즈가 늘어날 것이라 추측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건강과 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금, 환경·건강 분야 전문가가 또한 떠오르는 직업이 됐다. 환경공학자는 공학적인 원리를 활용해 대기 환경, 수질 환경, 폐기물 환경, 토양 환경, 해양 환경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연구와 조사를 하거나, 환경영향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그 밖에도 환경 관련 정비 개발, 친환경 제품 개발 등도 이

업종에 포함된다. 또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건강관리 앱을 개발하는 웰스케어 전문가의 역할도 더욱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 성장한 직업으로는 감염병 관련 전문가가 존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공동 주최한 4월 20일 '코로나19가 바꾼 미래'라는 온라인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 변화를 비대면·원격사회로의 전환, 바이오 시장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 스마트화 가속, 위험 대응 일상화와 회복력 증시 사회 총 4가지로 전망했다. 이는 곧 국내·외 빅데이터 정보 통합 분석을 통한 감염병 국제공조체계 구축하는 직종을 기대한다는 뜻이라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감염병이 언제든지 다시 발생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감염병 확산 및 예측·조기 정보 기술 관련 직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을 배달해

주는 운송 기사와 온라인 유통을 관장하는 유통 전문가 또한 전망이 밝아질 것으로 됐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무인 배송 문화가 시작되어 드론 조종사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다.

대외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의 특수교육에 활용하는 교육 분야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성능 외아이나 디지털 기기 등 디지털 교육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 교육 시스템은 기획하고 만드는 인력에 대한 니즈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교육 시스템 전문가가 본 니즈를 충족할 직업으로 교육 플랫폼의 기획 및 운영을 돕는다.

이밖에도 언택트 상황 속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직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추세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는 새로운 시대를 불러 일으켰다.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변화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현정 기자  
hvyuk369@gmail.com

## 취업 사이트 소개

졸업 예정자를 위한 알짜 정보



▶사람인 사이트 홍보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취업난이 발생하고 있다. 실직자가 늘어나는 지금, 취업에 골머리를 앓는 이들을 위해 준비된 사이트가 있다. 취직에 막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준비된 본 사이트들은 자기소개서 작성법 및 구인구직 등 다양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다. 그중 ▲사람인 ▲워크넷 ▲잡코리아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람인은 직업별, 지역별 채용공고를 제공하는 취업포털 앱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공사, 공기업, 외국계 기업 등 다양한 채용공고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구직 행동 패턴을 분석해 사용자에게 딱 맞는 채용공고만 보여주며, 편리한 메뉴를 제공해 원하는 채용공고만 빠르게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입사지원 현황 및 스크랩 공고, 최근 본 공고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해 곧바로 입사지원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취업 후에도 휴가 계산기, 연봉 계산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가 준비되어 있다.

워크넷은 1998년에 첫 개시한 서비스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며 구직·구인정보와 직업·진로정보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취업 정보 사이트다. 2011년 7월부터 민간 취업포털과 지자체 일자리 정보를 워크넷 한곳에서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 3.0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하여 Open API 제공과 지역 워크넷, 정부 지원 일자리, 시간선택제, 중소기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했으며,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PC 외에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워크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 구직자에게 지역별, 역세권별, 직종별, 기업형태별 등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비롯해 온라인 구직신청, 이메일 입사지원, 맞춤 정보 서비스, 구직활동 내역 조회/출력, 메일링 서비스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구인기업에게 지역별, 직종별, 전공개별별 등 다양한 인재정보를 비롯해 온라인 구인신청, 인재정보관리, 맞춤 정보 서비스, 썬킹, e-채용담당 등의 채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밖에 직업심리검사, 직업·학과 정보검색, 직업탐방, 진로상담 등 직업·진로 서비스와 Job Map, 일자리/인재 동향, 통계간행물/연구 자료 등의 고용동향 서비스를 제공한다. 워크넷에는 인터넷 서비스가 존재하는데, 고용센터 상담원 및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 구인신청 또는 구직신청을 통해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고용계약의 성립 등 취업알선 업무와 구인구직 통계, SMS/FAX, 모니터링 업무를 지원해 주는 취업알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청년강소기업채택, 청년턴턴,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 민간위탁 등 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 지원 서비스 또한 사용 가능하며, 고용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취 프로그램, 청년층 직업상담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잡코리아는 1998년 사업을 시작했으며, 구직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개설된 플랫폼이다. PC뿐만 아니라 잡코리아 앱, 잡코리아 모바일 앱, 알바몬 앱 등이 있어 휴대폰으로도 손쉽게 사용자가 가능하다. 이들은 경력력 맞춤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뿐만 아니라 관심 기업이 채용공고를 등록하거나 스크랩한 정보를 워크넷 한곳에서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 3.0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하여 Open API 제공과 지역 워크넷, 정부 지원 일자리, 시간선택제, 중소기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했으며,

신현정 기자  
hvyuk369@gmail.com

책 속의 풍경 - 채용 트렌드 2021

## 변화하는 취업 트렌드



- 책 제목: 채용 트렌드 2021
- 책 저자: 윤영돈
- 출판사: 비전비엔피

2020년 코로나19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졸 신입사원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기업이 코로나19 이전(8.7%)에 비해 두 배 이상(19.4%) 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기업마저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일상을 넘어서 채용시장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채용 트렌드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지속적인 특성이 있다고 한다. 취업 이후에도 채용시장의 흐름을 계속 주목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잡고 성과를 연결할 수 있다. 커리어 코치이자 채용 전문가인 윤영돈 저자는 '채용 트렌드 2021'에서 다년간의 취업 현장 경험과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채용시장의 흐름을 10가지 키워드로 정리하여 국내외 채용 동향과 함께 소개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야 한다.

'채용 트렌드 2021'에는 국내는 물론

세계 채용 동향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고 코로나 이후 취업과 채용 트렌드 전망과 주요 기업의 인재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책 속에 담긴 10대 키워드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키워드에 대한 내용은 이렇다. 먼저 개인들은 이미 일과 가정을 통합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회사가 드러나고 있다. 전염의 위험으로 재택근무를 권하는 회사가 보편화되고 있다. 화상회의, 재택근무, 원격근무도 일 등 일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실제로 하루 중의 업무를 제대로 정하기만 한다면 집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주요 대기업들은 공채 대신 시·상시 채용으로 화상면접을 통해 직원을 선발하는 중이다. 고숙 성장이 멈춘 시대에 공채 제도를 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비용 절감과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특정 직무의 인력이 필요한 시점에 채용 공고를 올리고 협업 부서가 모든 채용 과정을 직접 진행하는 상시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직업을 통해 다양한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 '멀티커리어니즘'은 하나의 직업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밀레니얼 세대는 멀티플레이어에 능하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든다. 밀레니얼 세대는 최소한으로 일하며 원하는 대로 사는 방법을 찾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가 등장하며 Z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Z세대는 기성세대와 다르게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것이 아닌 왜 해야 하는지 묻는다. 기업에서는 Z세대가 자신들의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며 각자의 관심과 능력

에 맞는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한다. 퓨처캐스트 제프 프롬 대표는 Z세대에 대해 "생각보다 굉장히 성실한 세대이며 기성세대보다 좀 더 개인화되고 맞춤형 커리어패스와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Z세대의 조직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으며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인사관리 시스템을 가져야 그들을 안착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헬릭스 조직에 대해서 설명한다. 헬릭스 조직은 리더를 별도로 구성해 각각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 특징이다. 애자일 방식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실패에 관대해지면 기업이 설정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 방향에 이탈이 생길 수 있다. 이를 중간에서 점검하고 조율하는 것이 헬릭스 조직의 리더 역할이라고 한다. 소규모 조직을 필요에 의해 만들고 해체한다는 점에서는 애자일 조직과 같지만, 여러 명의 리더가 존재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휴렛의 조영탁 대표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소중한 채용 기회도 잡아보길 바랍니다."라며 이 책을 추천했다. 임사를 지원하기 전에는 자신이 지원하는 기업의 업종을 파악하고 직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시장의 양날이 불투명하다는 우울하고 어두운 소식이 이어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신감을 유지해야 한다.

주승우 수습기자

이달의 영화 - 러브 액츄얼리

## 'Love actually' is all around



- 영화 제목: 러브 액츄얼리
- 영화 감독: 리차드 커티스

곧 있으면 2020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연도를 맞아 연말 느낌이 물씬 나는 영화를 가져와봤다. 바로 한국인들 모두가 좋아하는 '러브 액츄얼리'이다.

우선 감독이 로코롭의 장이다. 특히 전 세계가 각종 패러디를 하고 OST 역시 유행한 '러브 액츄얼리'가 잘 됐다 이유는 무엇일까? 영화를 본 사람은 알겠지만 분위기 자체가 연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연말이 다가오면 영화의 OST가 울려 퍼진다. 'Love~Love~Love' 가사를 듣기만 해도 우리 모두는 비틀스의 'All You Need Is Love'와 스케치백을 넣기는 장면을 떠올리게 할 만큼 영화와 OST가 흥행했다. 그리고 이 영화가 한국에서 잘 되게 된 재미있는 계기가 하나 있다. 사실 '러브 액츄얼리'는 19급 영화였다. 우리나라도 들어오면서 선정적인 장면들을 빼고 15급으로 바뀐 것이다.

'러브 액츄얼리'가 한국에 이렇게까지 흥행한 이유는 아직 유교 사상이 남아

있는 우리에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영화를 보기에 적절하게 선정적인 장면들을 빼고 15급으로 바꾼 것이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이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사랑'이었다. 네가 하는 사랑의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 하라고 이야기한다.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던 인물들이 크리스마스를 핑계로 자신의 사랑을 토해내지만 영화의 커플들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한다. 그러나 성공이든 실패든 크리스마스를 핑계로 솔직해지기 위해 용기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감독은 모두를 해피엔딩으로 두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서로 다른 환경의 사람들이 사랑에 솔직해지는 것을 보며 우리들이 늘 사랑 앞에 솔직해지길 바랐던 것 같다.

그러나 영화를 보면서 감독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이루어지지 못해서 제일 안타까웠던 인물은 사라(로라 리니)였다. 자신의 남동생 때문에 계속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칼(로드리고 산토로)과 밤을 보내려다가 실패한다. 그리고 결국에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내게 된다. 그러나 사라(로라 리니)는 절대 좌절하지 않는다.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일 로맨틱한 커플은 제이미 커플이었다. 제이미(폴린 퍼스)는 원래 만나면 여자가 있었지만 자신의 남동생과 바람이 났고 그로 인해 도망치듯 온 자신의 별장에서 운명치도 못한 만남이 생겨버렸다. 자신을 도와주던 가정부와 이야기도 통하지 않지만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다. 둘은 결국 이별 수 없이 헤어지게 되지만 제이미(폴린 퍼스)는 소통을 위해 포르투

갈어를 배운다.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되자 오렐리아(루시아 모니즈)에게 청혼한다. 정말 놀랐던 건 오렐리아(루시아 모니즈)에게 청혼하자 오렐리아(루시아 모니즈)가 영어로 답한 것이었다. 오렐리아(루시아 모니즈) 역시 언젠가 제이미(폴린 퍼스)와 이야기하기 위해 영어를 공부한 것이다. 진정 사랑이었다. 사랑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결국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들이야말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양한 커플들이 사랑에 솔직해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랑에 솔직해지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배우면서 원하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이루어졌다. 이 어린 아이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어쩌면 사랑이란 감정에 낯선 아이일지라도 어렸던 그 감정을 아이역시 느끼고 있고 사랑에 한계는 없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극 중 제일 대견하고 대단한 인물이다.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연말 분위기를 물씬 느끼게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영화를 본 여러분 모두 연말을 핑계 삼아 자신의 사랑을 고백해보는 건 어떨까? 사랑이 아니어도 좋다. 친구, 가족,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솔직해져 보기를 바란다.

임주은 수습기자

## 집에서 맞이하는 2020의 끝자락 나 홀로 크리스마스



▶편치니를 작품 사진

▷사진출처 - 하비풀(hobbyful)사이트



▶티빙

▷사진출처 - CJ ENM

연말연시는 많은 모임이 있다. 개인 간의 만남이 가장 많은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 기간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엄청난 속도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재우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 조치했다.

지난 12월 1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선포됐다. 이미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핀셋 규제로 방역 사각지대의 감염 다발 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2+α'가 시행됐다.

이에 대규모 집단모임이 발생 가능한 장소는 모두 운영 중단 조치 됐다. 더욱이 짧은 층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이 모두 금지됐다.

현 시국, 코로나19 중대기로 가급적 연말연시의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듯, 코로나 시대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및 연말은 실내, 집 안에서 즐겨보는 것이 어떨까? 실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 알아보자.

### 곰손도 금손으로, 편치니들

집에서 할 수 있는 이색 활동, 겨울철 취미활동과 어울리는 편치니들이었다. 편치니들은 천 위에 패턴을 따라 다양한 실

을 이용해 고리 형태로 자수를 놓은 공예 혹은 미술의 한 종류이다. 편치니들로 수를 놓으면 러그 같은 형태를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

편치니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속이 빈 새 뼈를 바늘로 사용한 이집트 때부터 편치니들이 시작됐다는 설도 있고, 러시아나 독일 혹은 영국에서 기원했다고 보는 설도 있다.

편치니들은 태피스트리 등 벽에 거는 장식품, 혹은 베개나 쿠션, 러그 이외에도 기타 장식품에 자수를 놓을 때 사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요즘은 취미 활동으로 많이 하는 추세이며 상업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활동이다.

인터넷으로 재료를 쉽게 구매 가능하여 누구나 따라 하기 좋은 활동이다. 재료는 편치니들, 수틀, 실, 천, 자수 패턴으로 5가지만 있으면 준비가 끝난다. 천에 자신이 디자인한 패턴을 그릴 수도 있으며, 시중에서 쉽게 디자인이 프린트된 천을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뛰어난 완성도를 자랑 가능하다.

편치니들의 방법은 정말 간단하다. 첫째, 디자인을 결정한다. 패턴을 그린 뒤, 패턴 주위 10cm 정도 여유를 두고 천을 자른다. 둘째, 넉넉한 사이즈의 수틀을 골라 패턴을 중앙에 오도록 한다. 셋째, 천이 불룩하게 올라온 면을 위로 수틀을 잡아 고정한다. 넷째, 편치니들에 실을 꿰

맨다. 다섯째, 연필처럼 편치니들을 잡고 어렵거나 지루한 활동이 싫다면 편치니를 수직으로 올려 자수를 놓는다. 이때, 편치니들의 날카로운 끝으로 패턴에 맞춰 천을 꿰어야 한다. 그리고 바늘을 다시 내 쪽으로 향해 꺼내는데 꺼낼 때, 실 전부를 뽑아내지 않도록 주의한다. 여섯째, 몇 밀간격으로 편치니들을 옮겨 자수를 계속한다. 완성할 때까지 자수를 반복한다. 끝으로 천에서 편치니들을 천천히 빼내면서 자수를 마무리한 후, 틀에서 꺼내면 완성된다.

여가시간을 풍요롭게 보내고 싶지만, 어렵거나 지루한 활동이 싫다면 편치니를 추천한다. 매력적이고 모던한 스타일의 작품을 통해, 성취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 천성 집순이! 움직임이 싫다면, OTT 서비스

움직임이 필요한 활동적인 것이 싫다면,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인 OTT 서비스 시장을 추천한다. 영화, 드라마 등 각종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며, 넷플릭스, 왓챗, 유튜브, 옥수수 TV, 티빙 등이 있다.

OTT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편리함, 자체 콘텐츠나 프로모션, 나에게 딱 맞는 영상 추천 등으로 인기를 끌

고 있다. 특히,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는 OTT 서비스 이용자 중 91%가 사용할 정도로 큰 인기 서비스이다.

OTT 서비스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국내 플랫폼으로는 티빙, 왓챗 플레이, 웨이브(wavve), 시즌(seezn), 옥수수 등이 있으며, 해외 플랫폼으로는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Apple TV+, 아마존의 프라임비디오 등이 있다.

급속도로 성장한 OTT 서비스는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가 자체 제작 오리지널 시리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내 OTT 서비스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자체 제작되는 시리즈 중 K-콘텐츠의 파급력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최저시급 정도의 금액으로 한 달을 일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OTT 서비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시각적으로 풍성한 콘텐츠를 즐겨보길 권한다.

실내에서 지루하게 보내기 싫다면, 코로나 블루로 삶을 침식당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남은 연말을 풍성하게 즐기기 위해, 다양한 추천 영화 및 동영상들로 알찬 시간 보내는 것을 추천한다.

자료출처 : 위키하우(wikihow)  
김태향 기자  
hyangsun311@gmail.com

## 축제·공연 소식

### 2020 부산문화 송년음악회 클래식&크로스오버



- 기간: 2020. 12. 11. (금)
-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부산문화

### 무지카비바 제30회 정기연주회 12월의 베토벤



- 기간: 2020. 12. 15. (화)
- 장소: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 주최: 무지카비바앙상블

### 2020 코로나19 블루 극복을 위한 힐링캠프 김창욱 시즌2



- 기간: 2020. 12. 25. (금)
- 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주최: ㈜하늘이엔티

### 오페라 '라 보엠'



- 기간: 2020. 12. 26. (토)~12. 27. (일)
-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오페라단 나눔

### 박영균: 들려다 듣는 언덕



- 기간: ~2020. 12. 31. (목)
- 장소: 부산시공공연예발전위원회(기획전시실)
- 주최: 부산시주황색기법사업회

### 제12회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 기간: ~2021. 01. 09. (토)
- 장소: 부산 광복로, 부평동, 보수동 일대
- 주최: (재)부산기록교향연합회

코로나19 악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축제가 연기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은 무엇일까

## 동절기, 한줄기 빛을 밝혀준 사건



▶1914년 크리스마스 정전의 현장 사진

▶사진출처 - 위키백과

보통 12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크리스마스이다. 크리스마스는 성인들에게 곧 연말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한 해를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될지, 혹은 회포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등 여러 갈래 길에서 고민을 하게 만든다. 특히 유년기 때 크리스마스 모습을 생각하면 오두막과 전나무가 눈에 살포시 띄어지고, 그 사이를 뚫고 썰매를 탄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싣고 오는 장면들을 상상하게 된다. 이처럼 크리스마스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아이들을 잠들게 하고 성인들을 꿈꾸게 하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연말 모임을 자제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방구석에 쌓여왔던 답답한 감정들이 그대로 남아 접점한 기분만 드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크리스마스의 한줄기 빛을 밝혀준 사건이 있었다.

### 제1차 세계대전-크리스마스 정전

1914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전 포고로 세상의 판도를 바꾼 대규모의 전쟁이 발발했다. 바로 약 4년간 이어진 제1차 세계대전이다. 1900년대, 당시 세계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쟁탈전이 한창이었다. 크리스마스 정전은 참호전, 철조

망, 탱크, 기관총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제1차 세계대전 와중에 가장 평화로운 인간성을 보여준 사건이다.

당시 독일군과 이에 맞선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서로 100m 떨어진 곳에 참호를 파고 대치를 하고 있었다. 1914년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독일군이 참호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촛불을 밝힌 뒤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렀다. 회한하게도 영국군은 열광하며 자신들의 캐럴로 화답하였다. 양측 참호에서 계속해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인사가 울려 퍼졌다. 사실 크리스마스 캐럴은 나라마다 자신들의 언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사는 가지각색이지만 멜로디는 만국 공통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측 병사들은 참호를 나와 무인지대에서 만났다. 독일군은 크리스마스 보급품으로 나온 초콜릿 등을 프랑스군에게 선물로 주고, 영국, 프랑스 연합군은 크리스마스 보급품으로 나온 삼페인 등을 독일군에게 선물로 주었다. 양측의 탱크, 기관총 등의 무기는 전선을 멈췄다. 병사들의 이러한 파격적인 일탈행위를 코앞에서 지켜보던 지휘관들도 대부분 분위기에 동감하여 상대측 지휘관을 만나 신사적으로 크리스마스 정전을 맺고, 당분간 교전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 사이



▶편수를 주인공으로 한 2020년 크리스마스 스티

▶사진출처 - 대한결핵협회

무인지대에 방치되었던 양측의 전사자 시신이 운구되었다. 게다가 크리스마스 정전 동안 서부 전선의 무인지대 여러 곳에서 축구 경기가 열렸다. 참혹한 전쟁 중 하나로 뽑히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크리스마스 정전이 주는 평화는 전쟁에 나온 병사들에게 인류애를 선물해 줬다.

### 세계 최초의 크리스마스 스티

크리스마스 스티를 만들게 된 배경은 결핵 어린이 돕기 모금 활동에서 유래하기 시작했다. 19세기 말 산업혁명 이후 열악했던 환경에서 결핵은 더욱 창궐했다. 결핵이 빈번히 발생하자 어린이를 좋아했던 덴마크 코펜하겐의 우체국 직원 아이날 폴 벨은 당시 많은 어린이들이 결핵으로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러던 중 아이날 폴 벨은 연말에 쌓이는 크리스마스 우편물과 소포를 정리하면서 동전 한 닢짜리 '스티'를 우편물에 붙여 보내도록 한다면 판매되는 동전을 모아 많은 결핵 기금을 마련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결국, 국왕인 '크리스찬 9세'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마침내 1904년 12월 10일 발행된 세계 최초의 크리스마스 스티가 탄생하게 됐다. 그의 소박한 발상이 많은 덴마크인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크리스마스 스티 운동

은 여러 줄기의 빛을 보게 됐다.

### 크리스마스 스티 운동과 확산

덴마크에서 발행된 크리스마스 스티는 불은 편지가 대서양을 넘어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갔다. 덴마크계 미국인 작가 자클 리이스는 고향에서 보내는 편지에 크리스마스 스티를 붙여진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 그의 형제 중 6명이 결핵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는 누군보다도 결핵의 비극과 크리스마스 스티의 유래를 잘 알고 있었다. 결핵 기금 마련을 위해 크리스마스 스티 운동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던 델라웨어의 에밀리 비셀과 함께 결핵환자를 입원 치료하던 한 병원의 운영비를 마련하고자 스티 도안을 자신이 하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1907년 월빙톤 우체국에서부터 크리스마스 스티 판매를 시작했다. 하지만 스티가 잘 판매되지 않자 필라델피아의 신문사를 찾아가 간곡히 설명하였고 열의를 한 그녀의 의지에 감동한 편집장은 마침내 크리스마스 스티에 관한 이야기를 기사화하였다. 지역사회 언론의 역할로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미국의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이 모두 스티 모금에 앞장섰으며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덴마크와 미국으로 크리스마스 스티 운동

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자 곧 스웨덴, 독일 및 노르웨이 등 주변국이 뒤따르고 1915년엔 루마니아까지 전파되었다. 동양권에서는 1910년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스티 발행되었으며 이어 일본에서는 1925년 12월에 자연요양사라는 민간 잡지사가 처음으로 스티를 발행하였고 1926년부터 결핵예방회에서 본격적으로 스티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랑과 나눔의 실천운동인 크리스마스 스티 운동이 성공적으로 거두면서 작은 불씨 하나가 많은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 한국의 크리스마스 스티

한국은 1932년 12월 일제 치하에서 캐나다의 선교사인 셔우드 홀 박사에 의해 처음으로 스티 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었던 한 해에 크리스마스 스티가 도착하게 되었다. 셔우드 홀 박사는 가난한 결핵환자들과 일반 서민들을 돌보고 깨우치려는 숭고한 사명감이 있었다. 캐나다에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1926년부터 해주구 세병원에서 일하다가 1928년 해주구세요양원을 설립하였다. 셔우드 홀은 1932년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스티를 발행하면서 발행 동기를 "첫째, 한국 사람들에게 결핵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둘째, 만인을 항결핵 운동에 참여시키는 것(즉, 스티 값을 싸게 하여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모두 사도록 하게 함), 셋째, 재정적 뒷받침을 필요로 하는 결핵퇴치사업의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였다."라고 회상하였다. 당시 셔우드 홀과 함께 일하던 문장모 박사와 크리스마스 스티 위원회 집행위원이던 김병서 선생도 크리스마스 스티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치료 약이 없던 시절, 한국인들은 스티를 부적처럼 여겼고, 매일 가슴에 붙이고 있는데 왜 기침이 낫지 않느냐며 혐의하기도 했다.

이때 처음으로 나왔던 크리스마스 스티의 도안은 남대문이었다. 원래 도안은 임진왜란의 상징인 거북선이었지만 일제의 강력한 이념 반대로 결국 남대문으로 제작했다는 슬픈 사실이 있다. 게다가 1932년 이후 1940년까지 9차례에 걸쳐 크리스마스 스티 발행되었지만 태평양전쟁 발발 직전 셔우드 홀이 스티의 누명을 쓰고 일본 헌병

대에 의하여 한국 땅을 강제로 추방됨으로써 스티 발행도 중단되었다. 그러나 6·25 전쟁이 끝난 직후 1953년 11월 8일 대한결핵협회가 창립이 되면서 크리스마스 스티는 다시 천사의 날개를 달고 매년 우리의 곁으로 다가왔다. 초기 크리스마스 스티는 디자인 중심에 중점을 뒀다면 지금은 그 시대를 비추는 사회적 이슈를 다뤄 전자파 차단 스티거나 이모티콘으로 변형되어 판매되고 있다.

### 크리스마스의 정신(Christmas spirit)

크리스마스는 일 년 중 가장 추운 시기이다. 사람이 어떤 인종이건 민족이건 사회 계급이 그보다는 추운 겨울 창밖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정말 측은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이다. 제1차 세계대전 참호 속 서로의 얼굴을 보고 있지 않을 때 독일군과 영국, 프랑스 연합군은 서로를 적으로 인식한다. 그런데 우연히 크리스마스의 캐럴을 시작으로 서로 눈을 마주쳤을 때 무시무시한 악마라고 생각했던 관념들이 없어졌다. 그리고 누군가는 결핵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크리스마스 스티로 결핵 기금을 마련해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고 있다. 인간세계를 보면 인간은 다른 인간을 대할 때 99%의 공통점보다 민족, 사상, 생각, 가치관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1%의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실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은 것이 인간이다. 원초적으로 배고프면 허기지고, 추위에 떨면 불을 쪼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열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이 원초적인 것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Christmas spirit)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크리스마스의 정신으로 연말 서로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따뜻한 선물을 해보길 바란다. 그 선물을 받은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깃든 선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자료출처 : 위키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결핵협회  
최은성 수습기자

# 일 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동지

## 동지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



▶동지 팥죽

▶사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에서의 동지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1년 중 가장 낮아 밤이 가장 긴 반면 남반구에서는 밤이 가장 짧고 낮이 가장 긴 하지가 된다. 동지는 24절기 중 22번째 절기로 음력 11월에 들어 있어 음력 11월을 동짓달이라고 부르며 이를 양력으로 바꾼다면 대개 12월 22일 경이 된다. 동지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절기가 아닌 서양에서도 중요한 축일로 여겨져왔다. 과거 태양신을 숭배하던 페르시아의 미트라교는 동지를 기점으로 낮이 길어지기 때문에 12월 25일을 '태양 탄생일'로 지정하여 축하하였고, 이것이 로마로 넘어가 크게 유행하게 되면서 현재 기독교의 크리스마스가 생겨났다는 설이 존재한다. 중국의 고대왕조인 주나라는 동짓날 생명력과 광명이 부활한다고 생각하여 동지를 설로 삼았다고 한다. 당나라 역법서인 선명력에도 동지를 역(曆)의 시작으로

### 동지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여러 풍속

우리나라에서는 동지를 '다음 해가 되는 날', 또는 '작은설'이라 해서 크게 축하하는 풍습이 존재했다. 궁중에서는 동지를 으뜸가는 축일로 여겼고 군신과 왕세자가 모여서 회례연을 베풀었고 해마다 궁중에 예물을 갖추어 동지사를 파견하였다. 관상감(觀象監)에서는 새해의 달력을 만들어서



▶과거 동짓날의 모습

▶사진 출처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궁에 바쳤고 나라에서는 이 달력을 여세를 짚어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러한 풍습은 단오에 부채를 주고받는 풍속과 아울러서 하선동력(夏扇冬曆)이라 불렀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누어진 달력은 24절기가 중요했던 농경사회인 당시에 요긴하게 사용되었고, 이러한 풍속은 오늘날 연말연시에 달력을 선물하는 것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동짓날이 되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연못의 수면이 얼어붙어 얼음의 모양이 쟁기 모양 같아진다고 한다. 동국세시에는 "중절도 흥주 함덕지에 매년 겨울이 되면 얼음의 모양이 용이 땅을 갠 것 같이 되는 이상한 변이 있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언덕 가까운 쪽으로 세로 갈아나갈 자취가 있으면 이듬해는 풍년이 들고, 서쪽으로부터 풍속으로 북반을 횡단하여 갈아나간다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혹 갈아나간 흔적이 동서남북 아무 데로나 종횡으로 가지런하지 않으면 평년작이 된다고 한다. 농사꾼들은 이것으로 이듬해의 농사일을 징험한다. 경남 밀양 남지에서도 용이 땅을 갈아 이듬해의 농사일을 징험한다고 한다"라는 내용이 존재한다. 이 밖에도 동짓날에는 부적으로 뱀 사(蛇) 자를 써서 백이나 기둥에다가 붙이면 악귀가 들어오지 못한다거나, 동짓날 날씨가 따뜻하다면 다음 해에 질병이 많아 사람이 죽고,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우면 풍년이 들 것이라고 하였다.

### 동짓날 펼쳐지는 행사와 놀이

동짓날에는 팥죽을 다 같이 쑤어먹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민간행사였다. 동지가 동짓달 초승에 들면 애동지라 하고, 중순께 들면 중동지, 20일 넘어서 들면 노동지라 하는데, 애동지 때에는 팥죽을 쑤지 않

는 것이라 전하고 있다.

동짓날에 한해서 노는 특별한 놀이는 따로 없지만 동짓날에는 밤이 가장 긴 계절이기에 조상들은 추야장(秋夜良) 또는 동짓달 긴긴밤이라 해서 놀이 등을 통하여 긴 밤을 보내기도 하였다. 동지 무렵에는 오후 5시만 되어도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른게 저녁을 먹었다고 한다. 그 뒤 초저녁에 잠을 잘 수는 없으니 가족들이 큰 방에 모이거나, 남자들은 마을 큰 사랑방에 모이게 된다.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는 이야기책 읽기, 윷놀이, 중경도 놀이 등을 했다고 한다. 윷놀이는 한국의 실내놀이 중 가장 보편적인 놀이로 남녀의 내외가 엄격했던 시대에도 당내 간에는 남녀노소가 편을 짜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였다. 윷놀이에서 나타나 는 수사(數詞)는 도, 개, 걸, 윷, 모라 하는데 돼지, 개, 거투(驅馳), 윷(牛), 모(馬)를 뜻하여 모두 동물의 이름이며 짐승의 달리는 속도와 몸집의 크기를 감안해서 배치한 것으로 이해된다. 옛날 사대부 가정에서는 윷놀이 때에 부르는 윷노래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중경도(從童圖) 놀이는 일명 승경도(陞童圖) 놀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사대부 가정에서 겨울철에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에 의해서 놀이된다. 종이에 내 외외의 모든 관직명을 적어 주사위를 굴러 나타나는 숫자에 따라 승진케 하는 내방 놀이로, 관직은 반드시 탐관오리가 되면 파직을 파하고 사약을 받아 죽는 일도 있으니 그러한 과정을 놀이에 수용해서 관직이 순탄치만 않은 것을 놀이로 가르쳐 주고 있다. 승경도 놀이는 장차 관계에 나아갈 서당 학동들에게 관직명과 승차를 이해시키며 관직제도 를 익히게 하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었다.

### 동짓날에는 팥죽?

동짓날 팥죽을 먹는 풍습은 아주 오래전 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풍습이다. 동짓달 긴긴밤이라 해서 놀이 등을 통하여 긴 밤을 보내기도 하였다. 동지 무렵에는 오후 5시만 되어도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른게 저녁을 먹었다고 한다. 그 뒤 초저녁에 잠을 잘 수는 없으니 가족들이 큰 방에 모이거나, 남자들은 마을 큰 사랑방에 모이게 된다.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는 이야기책 읽기, 윷놀이, 중경도 놀이 등을 했다고 한다. 윷놀이는 한국의 실내놀이 중 가장 보편적인 놀이로 남녀의 내외가 엄격했던 시대에도 당내 간에는 남녀노소가 편을 짜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였다. 윷놀이에서 나타나 는 수사(數詞)는 도, 개, 걸, 윷, 모라 하는데 돼지, 개, 거투(驅馳), 윷(牛), 모(馬)를 뜻하여 모두 동물의 이름이며 짐승의 달리는 속도와 몸집의 크기를 감안해서 배치한 것으로 이해된다. 옛날 사대부 가정에서는 윷놀이 때에 부르는 윷노래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중경도(從童圖) 놀이는 일명 승경도(陞童圖) 놀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사대부 가정에서 겨울철에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에 의해서 놀이된다. 종이에 내 외외의 모든 관직명을 적어 주사위를 굴러 나타나는 숫자에 따라 승진케 하는 내방 놀이로, 관직은 반드시 탐관오리가 되면 파직을 파하고 사약을 받아 죽는 일도 있으니 그러한 과정을 놀이에 수용해서 관직이 순탄치만 않은 것을 놀이로 가르쳐 주고 있다. 승경도 놀이는 장차 관계에 나아갈 서당 학동들에게 관직명과 승차를 이해시키며 관직제도 를 익히게 하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었다.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동지  
네이버 지식백과-동지 팥죽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임은성 수습기자



## 두려움을 인정하고 극복하기

추다영 (호 텔 경영 2)

나는 입학 당시 설렘 반 걱정 반으로 학교에 왔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설렘과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시험도 중고등학교에서 치던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서술형이 대부분인 시험을 보게 되었다. 또한 인생에서 처음으로 숙제 아닌 과제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 심지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조별 과제였다. 아무것도 모르면 나는 자료조사를 하면서 네이버 블로그의 글을 참고하기도 했다. 피피티를 만들면서 템플릿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사소한 것부터 전공에 대한 지식과 다른 사람과 협동하여 무언가를 해내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나는 조별 과제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항상 최선을 다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절대 못 하면 안 된다는 압박으로 바뀌었던 것 같다. 아무도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지만 나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어느새 2년이 흘렀다. 뒤를 돌아보니 나는 2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와 과제 말고는 한 것이 없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주변에만 해도 동아리 활동과 학교 활동에 참여하여 이런저런 경험을 쌓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분명 나는 열심히 해왔는데도 대학은 학점이 다가 아니었고 공부 말고는 활동한 것이 없으니 뒤처지는 기분이 들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려면 외국어도 잘해야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나는 호텔리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영어도 잘못하고 경험도 없다. 그래서 이제는 학점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남은 대학 생활을 외국어 공부와 대외활동으로 채우려고 한다. 내년부터 조금씩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미 늦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런 고민을 할 시간에 차라리 당장 시작해야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기에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려 한다.

나의 대학 생활에 대한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도 망설이던 사람이었다. 그런 나에게 발표는 너무 두려운 일이었다. 평생 피할 수 없다면 두려움을 극복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발표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해도 심장이 쿵쿵거리고 발표 자리에 서면 목소리가 떨리다 못해 손까지 떨릴 뻔했다. 발표하면서 떨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이야기할 내용에 대해 완벽히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소한 것 심지어 조금이라도 생소한 단어는 그의 미까지 공부해서 발표 자리에 섰다.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 스스로 완벽히 숙지했더니 떨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발표자의 실수는 그다지 인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했다. 내가 실수해도 아무도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으니 끝까지 한번해보자는 생각으로 발표에 임했다. 발표에 임하는 자세를 바꾸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지금은 거의 극복되었다. 아직도 나에게 발표는 많이 긴장되지만 예전처럼 못하겠다고 피하지는 않는다. 조별 과제에서 역할 분담을 하면 나는 이제 "저는 발표나 피피티 둘 다 상관 없으니가 여러분 먼저 정하시고 남은 자리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했다. 그렇게 하나를 극복하고 나니 나는 자신감이 생겼다. 무언가를 도전할 때 하기 전부터 망설이는 일이 줄어든 것 같다.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 학교도 마음 편히 가지 못한다. 며칠 전까지 대면 수업을 하다가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고 다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다. 대면과 비대면 수업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대면 수업은 하면 교수님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들 수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게 되며 얼굴을 마주하면서 친밀감이 쌓인다. 비대면 수업을 하면 이런 친밀감이 없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학교에 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하루가 길어진다. 지난 학기부터 거의 두 학기를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지만 어떤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 분명히 것은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마음 편히 전기를 만나고 여행을 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 죽비소리

## 연말을 마무리하며

안재원 (광고홍보 1)

곧 다가올 2020년이 설레었다. 2019년에는. 하지만 2019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2020년의 시작은 그리 좋지않은 못했다. 두근거리는 스무 살을 불안하게 시작했다. 스무 살의 연말은 어떻게 하는 설렘은 숨에 들숨 못 두둑게 꺼져갔다.

처음 입학해보는 대학교 캠퍼스를 언제 밟을지 모르고 불확실 속에 고대하는 학년은 20학번뿐이었을 것이다. 계속되는 연기 속에 집에서 학교 가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연기는 계속되었고 최대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며 연초를 보냈다. 납작한 화면 위로 보이는 교수님과 텍스트로만 소통할 수 있는 동기들... 게다가 사회의 분위기는 집을 나설 때 마스크라는 옷을 꼭 입고 나서야 했다. 마스크에 익숙해져 가는 내가 너무 싫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도 가족과의 식사나 초·중·고등학교 때의 친구들과의 작은 만남으로 숨통이 트이는 여가를 즐길 수 있었다.

옛 친구를 만나면 과거를 그리워했다. 서로 코로나만 아니면 여행을 갈 텐데, 코로나만 아니면 신나는 학교생활을 보내고 있을 텐데 하면서 코로나를 뺏겼다. 오랜만에 만나 친구들을 코로나 때문에 또다시 보지 못할까 봐 슬퍼했다. 귀한 순간들을 보내고 또다시 나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는 학교생활 아닌 생활을 이어 나갔던 것 같다. 인간이 참여한 온라인 연구회 일정이거나 외부강사 중 특강, 공모전까지. 답답한 2020년을 최대한 자유롭게

고 답답하지 않게 보내겠다는 나의 발악이었던 것 같다. 연구회는 MT 일정도 취소되고, 온라인으로 만남을 가졌다. 원래라면 대면으로 이루어졌을 특강은 비 대면으로 이루어졌고, 공모전은 동네 친구들이나 연구회 회원끼리 간간이 만나서 영상을 제작했다. 이 활동들에서 많은 것을 얻긴 하였지만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제 밟을지 모르고 불확실 속에 고대하는 학년은 20학번뿐이었을 것이다. 계속되는 연기 속에 집에서 학교 가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연기는 계속되었고 최대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며 연초를 보냈다. 납작한 화면 위로 보이는 교수님과 텍스트로만 소통할 수 있는 동기들... 게다가 사회의 분위기는 집을 나설 때 마스크라는 옷을 꼭 입고 나서야 했다. 마스크에 익숙해져 가는 내가 너무 싫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도 가족과의 식사나 초·중·고등학교 때의 친구들과의 작은 만남으로 숨통이 트이는 여가를 즐길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여름방학을 보내고 2학기를 맞았다. 2학기 중반에서는 1학기보다 상황이 완화되어 학교에 등교할 수 있었다. 난 학교와 거리가 가깝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 하지만 나는 2학기도 일명 '통 싸강' 일 줄 알고 기숙사 비를 환불해버렸다. 그래서 나의 통학 생활은 시작되었다. 편도 1시간, 왕복 2시간이 넘는 거리가 처음에는 할 만했지만 점점 지쳐갔다. 1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통학하는 것에 비하면 비효율적이고 체력 소모적인 일이었다. 게다가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공존해서 50분 수업 하나를 들으러 왕복 2시간을 소비해야 한 적도 있었다. 그래도 동기들과 직접 호흡하며 학교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날 팬하게 했다. 동기들도 코로나로 인한 불편한 생활이 지겨워 보였고 같이 힘들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렇게 애매한 학교생활을 보내고 추위가 계절 속에 연말이라는 단어가 덜컥 들어왔다. 연말... 억울하게 바이러스 하나로 원치 않은 생활을 보내며 혹 들어온 것이 너무 원망스럽기도 하고 미련으로 이루어졌고, 공모전은 동네 친구들이나 연구회 회원끼리 간간이 만나서 영상을 제작했다. 이 활동들에서 많은 것을 얻긴 하였지만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제 밟을지 모르고 불확실 속에 고대하는 학년은 20학번뿐이었을 것이다. 계속되는 연기 속에 집에서 학교 가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연기는 계속되었고 최대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며 연초를 보냈다. 납작한 화면 위로 보이는 교수님과 텍스트로만 소통할 수 있는 동기들... 게다가 사회의 분위기는 집을 나설 때 마스크라는 옷을 꼭 입고 나서야 했다. 마스크에 익숙해져 가는 내가 너무 싫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도 가족과의 식사나 초·중·고등학교 때의 친구들과의 작은 만남으로 숨통이 트이는 여가를 즐길 수 있었다.

그 기저에는 아마 코로나로 인한 요인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IMF보다 더 힘든 경제 상황이라는 말도 있는 만큼 많은 어려움이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지금 세상은 연말이라는 단어조차 즐길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은 수도 없이 장사를 그만두고,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꾸었다. 인터넷상에서 2020년은 지워버려야, 2020년 한 번 더 하자는 문장이 떠돈다. 나도 이 문장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기회가 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되기 전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바이러스가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싶을 정도이다. 하지만 이미 열렸었고, 시간은 흘러갔다. 2020년은 그 자체로 남아 가고 바이러스는 인간이 멈출 수 없는 것이 아니기에 내년 2021년, 아니 2022년에라도 제발 원래의 일상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내가 연말에 바이러스 걱정을 하며 마무리할 줄 몰랐다. 오늘도 마스크 없이 사람들의 미소를 보며 해후하는 그 날을 꿈꾸며 하루를 보낸다.

## 이달의 명언

매일 매일, 오늘이 일년 중 최고의 날이라고 가슴 속에 새겨라. -렉트 워드 에머슨

성과와 행복은 행복하게 지내기로 결심하고 찾았을 때 어려움에 정복 당하지 않는 무적의 주인이 된다. -헤렌 맥커

## 네 컷 만화

### 마무리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모두들 마스크 꼭 끼고, 더 밝은 2021년 맞이합시다. ^^

팬데믹으로 인해 무기력해졌던 마음을 기다리고 더 나은 2021년을 맞이하는 의미를 담아본 이달의 카툰입니다! 동서인 여러분들 모두 마스크 잘 착용하고 건강하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길 바라면서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 사설

2021년이 다가오며 12월 초부터 연말연시를 맞아 전적으로나 지인들에게 보낸 송년 인사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하지만 연말연시에 연하장을 보내며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예전과는 달리, 휴대폰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송년·새해 인사말'을 전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의 추세를 반영하듯 비대면으로 전하지만 재미 있는 연말연시 인사말 모듬들로 떠담을 나눈다.

많은 사람들은 2020년의 해를 흔히 '죽음의 해'라고 마무리 지었다. 올해가 겨우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끝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올해 1월에 시작한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끼쳤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면에서 큰 변화가 생겼다. 먼저 코로나19의 범 유행으로 전 세계의 교육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면서 학교와 대학이 세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휴교령을 내렸다. 유네스코에서 3월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와 대학의 휴교령이 165개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이는 폐교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 15억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원격, 온라인 수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뿐만 아니라 범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격리 및 사회적 활동의 제한, 공포, 실업 및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일명 '코로나 블루'가 지속됐다. 이처럼 좋지 않은 사건들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를 지나 2021년도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미래에 어떤 삶을 맞이하게 될까? 첫째로는 코로나 시대를 이미 맞이했기 때문에 디지털 문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더라도 디지털 이용의 확산이 가속화될 것이며, 기업에서는 경영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혁신의 힘'이 중요해진다. 또한 무엇보다 개인 간 디지털 사용이 늘

## 2021년이 다가오며

어나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층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접근성 제고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한국 정부는 한국의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5G 초고속망과 데이터의 수집·활용·가속화 등 디지털 인프라 집중 투자 계획을 밝혔다.

둘째로는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는 기술 변화로 경제를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이야기를 덧붙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앞으로 10년 동안 지난 100년간 이룬 것보다 더 큰 부를 창출할 것"이라 전망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술 변화의 물결이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편리성을 줄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가까운 미래의 변화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신속하고 빠른 기술 변화 시스템 등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본인다. 셋째로는 백신이다. 백신은 코로나19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백신 보급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대 글로벌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는 세계적인 제약회사 중 하나인 '화이자'와 '모더나' 회사에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따라 코로나 백신이 대량으로 운송된다면, 코로나 종식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모든 영역에서 비 대면 활동이 일상화되고, 디지털 전환을 기점으로 소비·투자 형태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제 사회로서의 영역에서는 단점을 가질 확률이 높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타 인종에 대한 혐오 증가로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국제 사회로서의 혐오감이 높아지면 일각리가 줄어들어 해외 근무가 힘들어진다. 이는 국내에서도 저임금 서비스직과 취

약계층에게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킨다. 따라 우리는 장점과 동시에 일어나는 단점을 방지하기 위해 이제는 스마트 공장 강화, 비대면 업무 확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 강화가 필요한 시대다. 이는 서로에 대한 '협력'과 '양보'가 필수적인 메시지들을 전제한다.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가오게 되면 도래할 인프라 결합,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디지털 격차 확대, 허위정보 유통 속도 증가 등으로 사회불안을 자극할 수 있음에도 유념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다만 코로나 시대 변화 후의 일상을 빠르게 인식하고 이를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갈 수는 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하고 발전해야 한다. 이로써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어날 변화를 일찍 대비하여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 목회칼럼

### 때 / 시간 / TIME



유 의 신 교목실장

인류의 역사는 시간으로 시작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1)에서 '태초'라는 말은 영어로 in the beginning (의) tyviare 레쉬트 '머리'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존재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시간 개념은 인간의 이해 속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역 하에 있다는 것이 바른 표현일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는 시제가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할 수 있겠다. 단지 우리가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는

인간의 의식 속에 개념상으로 존재할 뿐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말하는 과거는 시간으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기억으로 존재하는가를 물어보면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미래도 인간의 시간이 아니다. 요즘같이 불확실하고 예측불허의 미래는 인간으로서 감당이 되지 않는 시간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단지 우리에게 확실한 시간은 절대로 이해되는 즉, 순간으로 이어져 선으로 오해하는 오늘날이라는 시간 밖에는 없다. 그래서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고 해서 내가 대단해지는 것도 아니다. 과거도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고, 미래도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故) 설립자 장성만 목사님의 어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똑같은 24시간(1440분/86400초)을 주고 가면 매일 지갑에다가 넣어 주신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시지만 어떻게 쓰느냐는 순전히 본인의 몫이다. 그리고 남아서 저축할 수도 없다."라고 하셨다. 존음을 아껴서 귀하게 사용하라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2020년 연말이

## 동서만평

글·그림 정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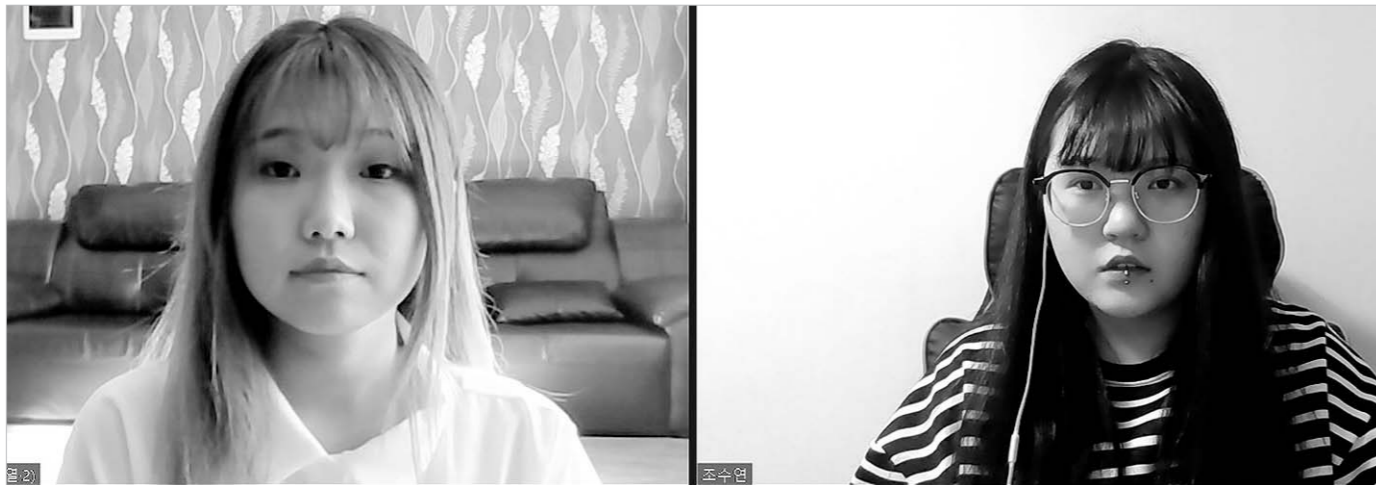


올해 연말은 소중한 사람과 집에서 어떠세요?

■ 우리 대학 학생들과의 인터뷰

# 특별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희망은 폭풍 속에서 피어난다'

## 동서 학우들의 소중한 한마디



▶ Zoom을 활용한 인터뷰 진행 (좌) 강현아(광고홍보학과·2) (우) 조수연 수습기자



▶ (좌) 김민영(영화과·1) (우) 임주은 수습기자

2020년도는 다른 어느 때보다 특별한 한 해였다. 처음으로 코로나 시대를 접했고 그로 인해 사이버 강의라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부했다. 어렵게 학기를 끝내고 있는 가운데,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아쉽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를 자신의 방식대로 이겨나가고 있는 학생들의 학기를 마무리하는 소감을 들어 보았다.

**Q.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2020년도 학기를 마무리하는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A. 답타 리엔이(경영학전공·2)**  
전 매일 일기를 쓰고, 일상에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보내니, 어느덧 11월 25일이 되었어요. 올 한 해는 힘든 일이 많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성장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랑 같은 외국인 유학생분들과 함께 그림자? 저도요. 그래도 올해 2020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였지만, 잘 이겨내고 열심히 공부해서 멋지게 기말고사를 마무리하기를 바라요. 내년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고대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A. 김민영(영화과·1)**  
코로나 때문에 1학기에 학교를 못 다닌 점에서 매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학기가 되면서 학교를 나가게 되었는데 집에서 강의를 듣는 것보다 직접 보고 듣고 하니 확실히 기억에 남고 좋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게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ZOOM을 이용한 원격수업을 통해 영화학도로서의 역학적 이론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는 덕분에 여유시간이 생겨 오히려 선배님들 워크숍이나 졸업 작품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 2학년 때의 실습수업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A. 정유진(DIS학과·1)**  
벌써 제 대학에서의 첫 1년이 다 지나가는 시기에 서있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걸 체험해 보지 못한 아쉬움과 그래도 1년 잘 보냈구나 싶은 뿌듯함이 공존합니다. 많은 것이 제약되었고, 신입생만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큰 아쉬움과 속상함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대학 생활은 남아 있기에 또 이 과정 속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기에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1학년 동안 힘들고 지치기도 했지만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A. 안형기(운동처방학과·3)**  
이 글을 읽고 있는 대부분의 학우분이 그렇겠지만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겪은 한 해였습니다. 1월에 미국 Fort Hays State University 에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으나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예정된 기간보다 일찍 귀국하게 되었고 집에서 자기계발을 하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우울함과 상실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군 생활 중인 친구와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친구가 제게 해준 말이 제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데 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차이를 만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뒤돌아서 한 대 맞은듯한 기분이 들며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며 점차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를 잡고 단계별로 시행했습니다. 현재 아직 완벽하다고 할 순 없지만, 단계별로 시행해온 결과 지금의 만족하는 삶의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엔 모두가 동등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 해답을 가장 먼저 찾아 행동으로 옮겨야 코로나 블루 같은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앞으로 어떤 일을 마주하더라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 신지현(메카트로닉스공학과·3)**  
올 한해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연도에 비해 학교도 많이 안가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좀 답답한 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대면 수업보다는 비대면 수업이 많아졌어요. 1학기 때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막상 집에 있다 보니 학습량도 줄고 다른 것도 많이 하게 돼서 성적이 대면 때를 때보다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러다 2학기가 돼서 부분 대면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확실히 이전 학기보다 좀 더 신경을 써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대면 수업을 했을 경우 비대면 수업보다 확실히 집중이 더 잘 되는 것을 느꼈어요. 또한, 대면 수업을 하면서 대학교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고 밥도 먹고 패드도 같이 저번 학기보다 확실히 학교 다니는 것이 즐겁다고 느꼈어요. 작년까지는 학교 가기 귀찮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싫었으나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대면 수업의 소중함, 그리고 마음 편히 걸리기에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내년엔 부분 대면 수업이 아닌 수업이 대면 수업이 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A. 강현아(광고홍보학과·2)**  
그 어떤 해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 2020년도의 학교생활을 이제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무리를 하고 있어 놀랍다. 불안했던 대면 수업의 시작이었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 덕에 이겨내고 있었다. 작년 주변 사람들에

게 줬던 카드에 시 한 구절을 썼었다. 안재홍 시인의 내 안의 우주 중 '내 안의 우주가 언제나 너로 인해 아름답듯이', 내 안의 우주는 작년이 그랬듯, 올해도 그들로 인해 아름다웠는데, 올해 그들의 우주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면 좋겠다. 그거면 충분할 것 같다. 매일 밤을 같이 새고 있는 친구들의 울화가 포근했길, 남은 한 달이 포근하길 바란다.

**A. 천유정(경영학전공·2)**  
2020년은 코로나19의 열풍으로 완전한 언택트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학기가 시작되어도 온라인 동영상 강의 또는 실시간 화상 캠프로 수업을 하느라 친구들과 같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대면 수업을 경험할 때에도 서로가 조심해야 하는 상황인 지라 수업에서도 피할 수 없는 마스크 때문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하기조차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작년 학과 친구들과 함께여서 즐거웠던 MT,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뛰어다녔던 체육대회, 그 어느 누구보다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던 축제 등, 코로나19 이전의 모든 것들이 그리웁습니다. 2021년은 백신 개발 이후 꼭 답답한 마스크 없이 친구들과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콘택트 시대가 다시 열리길 바랍니다.

**A. 최연우(패션디자인학과·2)**  
일단 팬데믹 시기를 보내며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다는 불안감 속에서도 각자 열심히 살아온 모든 학생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해를 보내면서 익숙하지 않음에 익숙해져 가는 현재 상황이 때론 익숙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또한 저 자신의 역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빨리 이 상황 속에 적응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초반에는 너무 힘들고 과제가 뜻대로 되지 않아 많이 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실이 있지만, 분명히 '득'도 있었던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택트 혹은 블렌디드 수업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앞서 말한 것처럼 변화 대응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인의 역량을 기를 수 있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디자인 분야에서는 창의력,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한데 이러한 시기에만 나올 수 있는 새롭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들도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저에게 새로운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게 만든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모로 저에게 '새로움' 그 자체였던 한 해였습니다.

이번 2020년은 정말 '모두에게 힘들었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냥 투쟁은 할 수 없었던 올 한 해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면서, 내년에는 모두를 위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합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김단정(컴퓨터공학과·3)**  
올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여행은 물론 즐겨 다녔던 동전 노래방과 맛있는 음식점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지다니... 올해 초, 동아리의 회장을 맡고 신입생들과 동아리원을 이끌면서 활동할 마음에 기대에 가득 찼었는데 아무 활동 못하고 마무리가 되어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이 올 한해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한 학교 생활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고 한 학년을 잘 마무리한 저에게 수고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껏 그래 왔던 것처럼 이 시기를 잘 이겨낸다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될 일상생활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들 파이팅입니다!

**A. 김영훈(DIS학과·2)**  
저에게 있어서 2020년은 좋은 의미로운

나쁜 의미로운 정말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전역 후 군 복무 중에 모은 돈으로 남미 여행을 가려고 했던 계획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산되었고, 친한 친구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힘들어하는 모습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또한, 흘러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도전했던 일은 실수투성이로 뼈아픈 실패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힘겨운 시기 속에서 좋은 경험을 얻은 것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을 통해 친구 혹은 가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었고, 자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다양한 인생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이었다면 자기계발을 위한 새로운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이며, 남에게 지우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으로 떠들썩했던 분과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 그리고 짧은 가을을 보냈더니 어느덧 겨울이 저의 곁을 흔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있어서 올 한 해는 원래 계획과 다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한 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2020년이 마냥 당혹스러운 불청객으로서 끝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다 함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파이팅!

**A. 김다은(보건행정학과·2)**  
이번 연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안타까우면서도 덕분에 잠시 멈추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를 돌아보며 건강과 마음, 성장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주변을 둘러보며 기대와 실망을 마주하게 된 시간이었습니.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학교도 일도 친구도 잠깐 멈춰있지만 내년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었으면 좋겠고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은 내년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임주은 수습기자 조수연 수습기자

## 이달의 성경 속 인물 - 예수



▶ 예수의 탄생 > 사진 출처-네이버 블로그 [주간동아]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루살렘의 남쪽에 위치한 베들레헴 들판에 양 떼를 지키고 있던 목동들이 엄청난 빛을 발견한다. 목동들은 두려움에 떨

어주어 더욱 신앙적으로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점점 현대에 접어들면서 기독교인들은 가족이나 지인, 친구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관습을 빚대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을 가진다. 그래서 각자 날짜를 정하게 된다. 그런데 그 날짜가 제각각이었다. 누군가는 1월 6일로 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3월 27일, 1월 1일로 다양했다. 그럼 누가 예수의 탄생을 12월 25일로 지정하고 이를 축하하였는가? 바로 3세기 초 로마 교회의 주교였던 히폴리투스이다. 히폴리투스는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된 해를 기원후 29년으로 보았고 처형된 날짜를 3월 25일로 추산했다. 그리고 예수의 생애를 33년으로 정하며 성령으로 잉태되는 날과 십자가형을 받는 날 모두 같은 3월 25일로 보았다. 그래서 3월 25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12월 25일을 예수의 탄생일이라 결론을 내렸다.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에서 8년이 지난 321년 예수가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마가복음 16: 2)'을 주의 날이라 하며 공휴일로 삼았

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12월 25일로 공식화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켜왔다. 예루살렘의 주교 키릴은 로마의 주교인 율리우스에게 출생 일자를 명확히 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예수께서는 3월 25일에 수태되셨다. (중략) 전통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12월 25일에 태어났었다'라고 삼위일체론 4권 5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동방교회에서는 1월 6일을 예수의 육체적, 영적 생일로 생각하며 지켜왔다. 지금도 일부 동방교회에서는 1월 6일, 아르메니아 교회에서는 1월 7일을 크리스마스라고 지키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5월 20일과 21일이 지날 때이다. 러시아 정교회는 율리우스력 12월 25일이 16세기에 정한 그레고리력으로 1월 7일이 된다는 이유로 1월 7일을 크리스마스라고 지키고 있다. 같은 러시아정교회 국가인 세르비아, 그루지아 등에서는 율리우스력으로 정해진 12월 25일을 따르고 있다. 여러 기록들을 통해 기원전 4년 전 일 것이라고 추측은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며 성서에서도 찾을 수 없다. 단지 탄생 당시 목동들이 들판에서 양 떼를 지키다가 예수의 탄생을 전해 들은 것(누가복음 2: 8-9)으로 보아 한 겨울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된다. 다니엘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는 것을 보았다(단 7: 13-14).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가고 그 앞에 인 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단 : 13-14)." 현재 우리가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지칭하는데 크리스마스는 영어로 'Christmas'인데 이는 '그리스도(Christ)의 미사(mass)'라는 뜻이다.

자료 출처 : 허호의 '예수, 새롭게 다시 보기', 네이버 지식백과 이윤진 수습기자

#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 2020년도 2차 체육종합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 접수기간 : ~2020. 12. 13. (일)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과학/공학



- [웹툰X웹소설] 대상은 작정하고 영상화로!
- 접수기간 : ~2020. 12. 20. (일)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문학/시나리오, 캐릭터/만화/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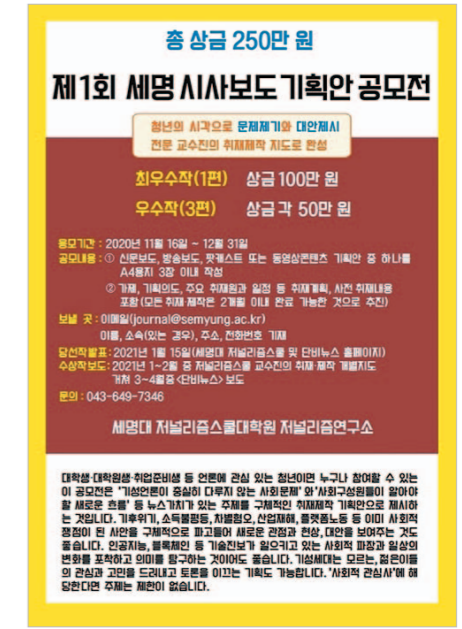
- 2020 핀업컨셉디자인어워드
- 접수기간 : ~2020. 12. 21. (월)
- 응모대상 : 대학생, 직장인, 일반인
- 공모분야 :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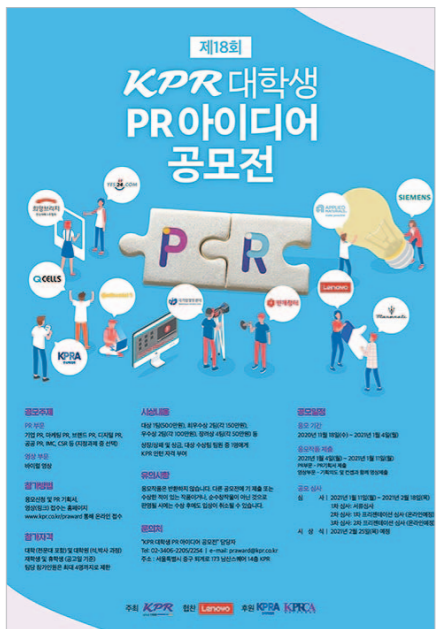
- 2020 국토도시 데이터 분석과제 오픈
- 접수기간 : ~2020. 12. 31. (목)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광고/마케팅



- 제1회 포스텍 SF 어워드
- 접수기간 : ~2020. 12. 31. (목)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문학/시나리오, 과학/공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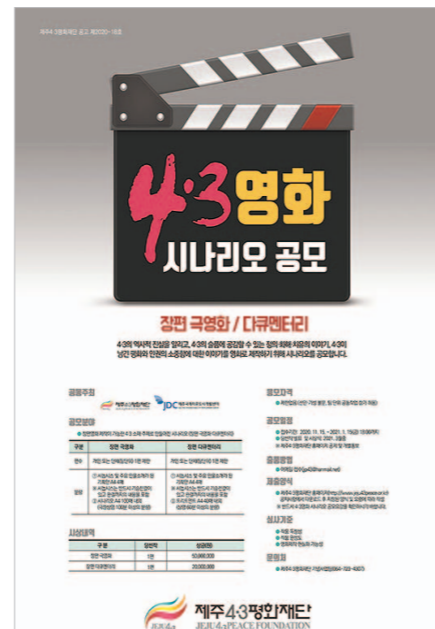
- 제1회 세명 시사보도 기획안 공모전
- 접수기간 : ~2020. 12. 31. (목)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제18회 KPR 대학생 PR 아이디어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 01. 04. (월)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광고/마케팅



- 제53회 대한구강보건협회 작품 공모전/2020 구강보건 작품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 01. 11. (월)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영상/UCC/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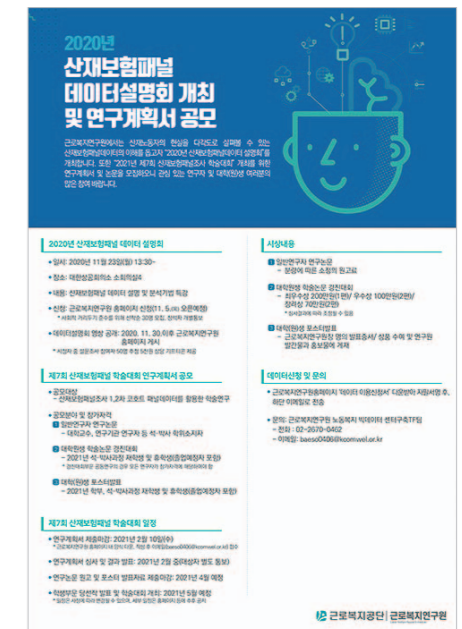
- 제주4.3평화재단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 01. 15. (금)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영상/UCC/사진



- 제1회 핑크리본 영화제
- 접수기간 : ~2021. 01. 31. (일)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영상/UCC/사진



- NAK 드라마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 01. 31. (일)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문학/시나리오



- 2020년 산재보험패널 데이터설명회 및 연구계획서 공모
- 접수기간 : 2021. 02. 10. (수)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논문/리포트

## 잠깐! 상식퀴즈

### 정보

동지는 한해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다. 24절기 중 22번째 절기에 해당하며 음력 11월에 속해 있어 음력 11월을 동짓달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한 동지는 작은 설이라는 뜻으로 '아세(亞歲)'라고 불리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1월에 태양이 북쪽으로 다시 회귀하는 날로 동지를 새해의 시작으로 삼는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동지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추위에 이르렀다'라는 것으로 아직 추위가 지나지 않아 추위가 끝나고 새싹이 움트기 시작하는 1월을 새해의 시작으로 잡았다. 추위와 달리 태양이 북귀한다는 것을 지나칠 수 없어 동지를 '아세(亞歲)', 즉 작은 설로 대접해왔다.

뱀(蛇) 자를 부직에 써서 거꾸로 붙여놓으면 악귀가 집안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고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내리면 풍년이 들 길조로 여긴다. 가장 보편적인 민간행사는 팔죽을 쑤어 먹는 것이 있다. 팔죽의 새알은 자신의 나이만큼 넣어 먹으며 '동지팔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먹는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도 존재한다.

### Hint

질병과 잡귀들을 물리치고 한 해를 잘 보냈다는 의미로 팔죽을 먹기도 한다.

### Q&A

Q.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을 칭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A.



하번, 학과, 이름, 연락처를 써서 산학협력과 대강당 입구에 있는 신문사 건의함에 넣거나 010-2859-0974로 연락주세요.  
\* 12월 30일(수)까지 퀴즈에 응모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두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당첨자 발표는 12월 31일(목)에 개별 통보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 학과 : \_\_\_\_\_  
· 학년 : \_\_\_\_\_  
· 이름 : \_\_\_\_\_  
· 연락처 : \_\_\_\_\_